

[제 2024-27호]

 <b>한국문화원</b>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b>보 도 자 료</b>		<i>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i>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배포일시	2024.04.08	담당부서	영화
연락처	323-936-7141(x111) hayoung@kccla.org	담당자	Hayoung Kim

**LA한국문화원,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회 개최**

- 4/17(수) 안재훈 감독 세번째 한국문학 애니메이션 시리즈 진행



**4.17(Wed) 7PM**  
**메밀꽃, 운수 좋은날, 그리고 봄봄 (The Road Called Life)**  
Ari Hall(3F), Korean Cultural Center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 
- ▶ 행사명 :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애니메이션 상영회
  - ▶ 일시 : 2024.04.17(수) 7pm
  - ▶ 장소 : LA한국문화원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 ▶ 첨부자료 : 프로그램, 사진
  - ▶ 행사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7141(x111) 영화/문화산업 Hayoung Kim
- 

LA 한국문화원(원장 정상원)은 4.17(수) 저녁 7시 문화원 아리홀에서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 애니메이션 상영회를 개최한다. 올해 5 월까지 진행되는 한국 단편 문학 애니메이션 시리즈 상영회는 이미 <무녀도>, <소나기> 등 안재훈 감독이 제작한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작품들을 차례로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14 년 개봉한 안재훈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은 한국 단편문학 작품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김유정의 “봄봄”을 원작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시리즈 영화로 개봉 당시 한국 고유의 심리와 정서를 잘 표현하고 한국의 멋과 흥을 고스란히 재현해 낸 작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안재훈 감독이 소속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연필로 명상하기”의 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첫번째 작품인 <메밀꽃, 운수 좋은 날, 그리고 봄봄>은 섬세한 그림체를 통해 슬퍼도 웃어야 했고, 고달퍼도 살아가야 했던 당대 등장 인물들의 인생을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 현대 문학을 영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문학이 가진 생명력을 살리고,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안재훈 감독은 한국 특유의 정서를 잘 담아낸 애니메이션을 통해 관객들과 꾸준히

소통해 오고 있다.

또한 LA 한국문화원 측은 5월 8일 <소중한 날의 꿈>을 통해 ‘한국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시리즈’의 마지막 상영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상영회는 무료이며 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끝/